

##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리얼리즘의 재구성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도덕적 리얼리티로서의 리얼리즘
- III. 계시의 리얼리즘
- IV.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로서의 리얼리즘
- V.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리얼리즘
- VI. 정치적 리얼리티로서의 리얼리즘
- VII. 나가는 말: 코로나19 시대의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7.07>

---

• ABSTRACT •

---

## Reconstruction of Reinhold Niebuhr's Christian Realism

Prof., Yoo, Kyoung-dong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studies theological realism of Reinhold Niebuhr.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think more broadly about the traditional 'realist ethics' used in Christian political theology. The Korean meaning of 'realism' or 'reality' can be interpreted in a variety of ways like 'exist,' 'realism,' 'fact,' 'straightforward,' 'status,' 'situation,' 'temporary,' 'phenomenon,' 'misery' and even 'reality of the kingdom of God,' which is given in grace beyond all conditions of reality. From this point of view, Niebuhr's theological realism opens the horizon for human existentialism, which allows us to interpret the present problems in the world in greater depth. This paper holds the meaning of the word 'reality,' expanding the horizon of meaning to suit the context of the context.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 way for the concept of 'theological realism' or 'reality' understood by Niebuhr to go beyond the problem of political reality, to help build the theory of responsible self through the theory of existence associated with God, and, above all, public theology in this post-Corna19 era.

**Key words:** Realism, Christian Realism, War and Peace, Power, Reinhold Niebuhr

---

## I. 들어가는 말

현재 국제사회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pandemic)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 질병의 책임을 놓고 동서양 열강 간, 또는 유럽 EU도 정치 경제적으로 분열하고 있으며, 심지어 흑인과 아시아인을 깎아내리는 인종차별(color of covid19)의 문제까지 생기고 있다. 경제활동의 위축과 더 나아가 국가 간 봉쇄정책으로 '세계화'의 기치마저 무너지고 있으며, 지구 곳곳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의 설 자리조차 없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인류가 처한 '현실'에 대한 신학의 이론적 방법론이 될 수 있는 '리얼리즘(realism)'과 '리얼리티(reality)'에 대한 해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리얼리즘(Realism)이라는 단어는 학계마다 그 사용 빈도가 높고, 그 의미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작용에 있어서 진리의 대상에 대한 경험과 선험 사이의 오래된 논쟁이 진행 중이며, 과학에서도 객관적 실체에 대한 검증 대상을 입증하는 방법론으로 리얼리즘을 사용하지만, 실제 실험과 검증 자체값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미학에서는 리얼리즘이 심미적으로, 정치학에서는 권력의 균형을 통한 정의,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부의 분배를 통한 복지의 개념 등 학과마다 리얼리즘은 마치 각 분과가 추구하는 이상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리얼리즘'은 '현실주의'로 많이 소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기독교 현실주의의 이론이다. 전통적으로 어거스틴(Augustine)의 '고전적 현실주의'의 기독교 정치학 이론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의 궁극적인 분리를 통한 중립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지만,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하나

님의 정부와 땅의 정부가 각각 사랑의 공동체와 정의 공동체의 조화를 통한 이 땅에서의 실천 가능한 교회와 국가의 협조를 추구하였기에 ‘현실주의’ 이론으로 소개되었다. 한국 신학계에서는 하워드 요더(Howard Yoder)의 ‘성서적 실재론’이나 스탠리 하우어워즈(Stanley Hauerwas)의 ‘윤리적 실재론’ 등 다양한 실재론의 개념도 소개되어 있다.

니버의 정치 신학은 어거스틴과 루터의 계보를 이어 대표적인 기독교 현실주의 이론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니버 시대에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체제에서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갈등에서 니버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하는 독특한 기독교 변증법을 통하여 제3의 대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의 오래된 대치 속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국가의 체제만으로는 적절한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던 학계에 니버의 이론적 프레임은 남북한의 정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충분히 제시하여 주었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에 관한 연구는 기독교 정치 신학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현실주의 윤리’를 보다 광의적으로 확대하여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필자의 관점에서 리얼리즘, 또는 이와 연관된 리얼리티(reality)의 한국어 의미는 ‘현실’이나 ‘실재’의 의미를 넘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존재’, ‘실제’, ‘사실’, ‘직시’, ‘상태’, ‘상황’, ‘일시성’, ‘현상’, 심지어 ‘참상’, 그리고 현실의 모든 조건을 넘어 은혜로 주어지는 ‘궁극적 이상’인 ‘하나님 나라의 실재’로도 그 의미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은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현재 세계 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간 존재론의 지평을 열어준다고 본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니버의 리얼리즘은 역사와 인간 존재, 정치 경제적 현실,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와 연관이 되며, 리얼리즘

과 연관된 ‘도덕’, ‘계시’, ‘자유’, ‘자아’, 그리고 ‘역사’의 개념은 리얼리즘이나 리얼리티에 대한 보다 광의적이고 심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니버의 신학적 방법론에 대한 해석은 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인간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공공신학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현실주의’라는 개념 대신 ‘리얼리즘’으로 통일하며, 일반적으로 ‘실재’, 또는 해석되는 리얼리티(reality) 개념도 문맥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의미의 지평을 확대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학계에 니버의 정치 윤리적 논문들이 종종 소개되었지만, 리얼리즘은 니버가 소개하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에서 국제간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정치적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sup>1)</sup> 이 기회에 니버가 이해하는 ‘신학적 리얼리즘’이나 ‘리얼리티’의 개념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신학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232. 니버의 주요 저서를 인용할 때 아래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원본을 통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같은 사이트에 있는 니버의 주요 1차 자료는 다음과 같다.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t, Clark and Colby, 1929),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3),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URL=<https://archive.org/search.php?query=Reinhold%20Niebuhr> (2020. 6. 29.). 참고로 니버의 주요 저서 중 위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추가 자료들은 별도로 인용을 표기함을 밝힌다.

## II. 도덕적 리얼리티로서의 리얼리즘

니버의 리얼리즘에 대한 사관은 전통적으로 정치 신학적 관점에서 주로 강조되었지만 니버는 도덕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론의 의미를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도덕적 리얼리즘(moral realism)의 개념을 소개한다.<sup>2)</sup> 인간은 역사 속에서 유한하고 일시적인 존재이며, 도덕과 윤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도덕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모색하는 도덕적 리얼리티(reality)의 개념에 대하여 니버는 부정적인 관점을 취한다.<sup>3)</sup>

니버는 리얼리티를 도덕적 주체성에 대한 개념으로 파악할 때 사용한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적 리얼리즘의 경우, 대표적인 사상으로 칸트의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를 인용하면서, 이는 “도덕적 상황에 있어 모든 분석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한다.<sup>4)</sup> 칸트가 신의 존재(reality)를 설명할 때, “모든 유한한 존재의 우연적이며 의존적인 특징은 감각적인 세상의 모든

2)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8, 25, 29, 68. 니버의 도덕적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은 공산주의와 이성주의 그리고 가톨릭의 자연법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니버의 저서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는 아래 사이트에서 원본을 확인하여 ‘pdf file’로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로 니버의 저서는 일반 ‘plain text’이므로 별도의 표기는 pdf 해당 페이지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PDF by ANGEL (realnost-2005@yandex.ru), URL=[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 (2020.6.29.)

3)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15-17. 75. 니버는 당시의 목회자들이 도덕적 리얼리티를 추구하려는 경향, 즉 행동하지 않고 단지 사고에 그치는 사조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25.

것이 '경험적인 조건과는 무관한 어떤 지적인 존재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지적 존재 자체가 모든 외양적 가능성의 근거를 포함한다.'는 설명에 대하여 니버는 비판한다.<sup>5)</sup> 왜냐하면, 칸트의 이러한 해석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미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sup>6)</sup> 니버는 기독교의 완전 개념은 이러한 도덕적 접근 방식이 아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다<sup>7)</sup>

한편, 니버는 존 로크(John Locke)의 “사고하는 것(thinking thing)”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관점을 또한 비판한다.<sup>8)</sup> 로크의 기대처럼 인간의 이성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개인주의를 끌어내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개인의 “임시적이고 파편적인 의지”가 “포괄성과 안전성”을 대변하는 국가의 주권을 대변할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니버는 비판한다.<sup>9)</sup>

니버는 위와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인간이 개인주의를 통한 리얼리티에 대한 온전한 판단은 “자기-지식과 자기의식”을 넘어서는 더 높은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0)</sup> 칸트식의 도덕주의나 존 로크식

5)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142-143. 니버가 칸트를 인용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Immanuel Kant, *Critique of Pure Reason*, Book II, Ch, 11, par, 4.

6) 위의 책, 143. 니버는 오히려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당신(Thou)’으로서의 신 존재 개념을 여기서 선호한다.

7)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25.

8)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75. 니버가 인용하는 존 로크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Book II, ch. 25.

9) 위의 책, 84. 니버는 헤겔(Hegel)과 보상케(Bosanquet)가 강조한 인간의 이상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국가론에 대하여 비판하며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 관련된 니버의 인용은 다음에 있다. Roger Holmes, *The Idealism of Giovanni Gentile*, 175; *The Philosophical Theory of the State*, 140.

10) 위의 책, 97. 니버의 이러한 주장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전제한다.

의 사고하는 개인주의는 인간의 주체성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니버는 합리적 이성을 통하여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없으며, 자연의 물리적 속성과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자유의 영(freedom of spirit)”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리얼리티가 존재론적으로 신과의 관계에서 형성됨을 암시하는 것이다.<sup>11)</sup>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도덕적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였다. 일반적으로 니버의 현실주의(realism)가 정치적 리얼리즘의 맥락에서 파악된 것에 비추어, 도덕적 리얼리즘이라는 맥락에서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니버의 방법론을 귀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연역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력균형과 같은 현실주의 정치의 문제에서 니버를 이해하기보다는 계시를 이해하는 니버의 이론으로부터 리얼리즘을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는 니버가 도덕의 문제를 합리성,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 III. 계시의 리얼리즘

필자는 앞 장에서 니버의 도덕적 리얼리티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그 특징을 인간의 이성은 유한하고 임시적이라는 그의 관점을 소개하였다. 니버는 개인주의, 또는 집단의 정치적 실현을 통한 집단의 노력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 해결 방안은 자아가 신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의미 물음, 즉 계시와 진지하게 마주할 때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니버는 리얼리티를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실존과 회복된 자아 개념을 설명할 때에 사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니버의 도덕적 리얼리즘은 신학적 리얼리즘으로 옮겨간다.

11) 위의 책, 102.



니버는 인간 이성의 발흥기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는 “비기독교적인 개념이자 현실적인 자율주의적 개인주의”라고 한다면,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기독교 종교의 조건 내 개인주의의 마지막 고지”라고 판단한다.<sup>12)</sup> 니버에게 리얼리티는 인간의 의식구조 안에서 실재(reality)를 경험하는 것이며, 자연에 대한 이해는 실재(reality)로서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다.<sup>13)</sup> 그러나 자연적 지식의 한계는 인간의 임시성과 자연의 유한성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리얼리티는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는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실존적 관계를 설명할 때에 파악이 되는 것이다. 니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적(private), 또는 역사적이며 공적(public) 계시로 설명될 수 있으며, 계시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실재(reality)이며, 인간의 실존적 경험과 연관이 된다고 강조한다.<sup>14)</sup> 따라서 니버는 인간의 경험하는 세계는 합리적 이성 중심의 객관적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며, 신과의 실존적 관계를 통하여 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니버는 인간이 자연과 역사 속에서 직면한 생의 의미 물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인간이 자연과의 적응을 통하여 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인간 이성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내적인 “조화와 능력”에 의하여 의미를 찾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생의

12) 위의 책, 64.

13) 위의 책, 144.

14) 위의 책, 136. “인간의 죄는 영적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니버는 강조하면서, “죄의 실재를 부정하는 자연주의”나 인간의 유한성이 육체로부터 연유한 것이지 악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신비주의나 이원론과 기독교의 영적 죄에 대한 강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294.

15)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의미 물음과 연관하여 한계가 있다고 니버는 지적하면서 한 예로, 인간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단지 동물적인 생명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넘어 리얼리티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인간이 단지 자연적인 조건에만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라고 니버는 해석한다.<sup>16)</sup>

니버는 “리얼리티의 깊이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유한한 합리성을 넘어 궁극적인 의미의 세계인 ‘신화(myth)’와 구별하여 주관적인 신비주의(mysticism)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설명하는데, 첫째, 신비주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싸되 순수하게 부정으로 남는” ‘부정(negation)’의 관점에서 보며, 둘째, 신비주의는 성서에서 나타나는 “창조의 선(good)과 유한하며 나누어지고 세분된 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관점과 달리, 세계를 환영이나 악으로 보며, 그리고 셋째, 신비주의는 인간의 깊은 의식 세계를 통하여 신과 합일할 수 있다는 전제로 결국 인간의 신격화에 이르게 된다.<sup>17)</sup>

이런 신비주의의 리얼리티와 달리, 계시는 “인간의 영과의 궁극적이며 초월적인 연합”으로 당신(Thou)이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니버는 주장

---

(Nisbet & Co., Ltd, 1941), 7. 니버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을 지향하며, 이 두 가지 관점을 조화하는 스토익주의(Stoicism)도 있다고 언급한다. 같은 책, 7. 한편, 인간이 인생에서 겪는 부조화의 문제는 영과 육이 서로 직면하는 한계 속에서 더 분명하여지는데,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안에서 영의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그 한계를 느끼고, 영 또한 무한한 자유를 신장할 것 같지만 육체의 한계 안에서 간히게 되는데, 이러한 부족함은 인간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니버는 강조한다.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130.

16)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8.

17)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45-146. ‘부정’의 관점에서 보는 신비주의에 대한 첫째 설명에서 니버는 머서(Mercer)의 관점을 인용한다.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Mercer, *Nature Mysticism*, 10.

한다.<sup>18)</sup> 니버는 마틴 부버(Martin Burber)의 관점을 빌려 성서에서 언급하는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인간의 의미 물음에 대한 적절한 해석임을 강조하면서, “다신론자는 모든 신적 모습, 즉 세상과 존재의 신비로부터 신을 구성한다. 반면에 유일신론자는 이런 모든 신비 안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같은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설명한다.<sup>19)</sup> 니버는 이렇게 전적인 타자와 마주한 인간의 계시 경험은 세 가지로 발전한다고 정리하는데, 그것은 각각 “존재의 궁극적 원천”이신 하나님, 즉 전적 타자를 의지하는 경우, 심판자를 순종하며 따르는 도덕적 책무, 그리고 용서의 경험이라고 요약함으로써 이성주의나 자연주의 도덕론자들이 결론에 이르는 인간 이성과 경험의 합리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윤리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계시를 경험하는 실존적 인간을 통한 신학적 리얼리즘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다.<sup>20)</sup>

지금까지 니버의 계시에 관한 리얼리티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니버는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궁극적 이상에 관해 물음이 한계에 다다르면, 그 유한성도 리얼리티이며, 이를 극복하자고 하는 대안적 설명도 리얼리티로서 논지를 전개한다. 니버에게 리얼리티를 통하여 설명하는 리얼리즘은 완전이 아니라 과정이며, 성취가 아니라 노력이고, 임시적 평화가 아니라 신의 완전한 평화를 위한 여정으로서 인식론적 한계를 지속해서 극복하는 신학적 언어이다. 그러나 니버는 그의 리얼리즘을 언어적 유희가 아닌 인간의 의미를 드러내는 리얼리티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직면한 세상 내 문제를 사랑과 형제애를 통하여 극복하여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촉발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전개한다.<sup>21)</sup>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

18)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39.

19) 위의 책, 143. 니버가 부버를 인용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Koenigum Gottes*, 91.

20) 위의 책, 141.

21)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계에서 회복된 자아는 이제 현실의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리얼리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 IV.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로서의 리얼리즘

앞 장에서 살펴본 계시의 리얼리즘은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인간과 집단 간의 협조를 끌어내는 일반 도덕적 리얼리즘이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계시를 통하여 인간의 리얼리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니버는 역사의 궁극적 의미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에 관하여 묻는다.<sup>22)</sup> 니버의 리얼리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통한 리얼리티의 파악에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간략하면 그것은 각각 역사 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history)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 기억, 그리고 정신, 또는 지혜나 의지의 능력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sup>23)</sup>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게 도덕적 이상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다. 니버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고스로서의 리얼리티'로 설명하며, 이때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으로 표현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니버는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유로 이 세상 내 리얼리티로서의 자발적인 고난을 택하셨기 때문이다.<sup>24)</sup>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

---

Tomorrow, 90.

22)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275-277.

23)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72. 니버는 루터의 인용에 대한 출처로 다음을 각주 하였다. Martin Luther, *Commentary on Genesis*, Part, II, v, 26ff.

량과 세상 안에서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역사의 리얼리티로 신학적 리얼리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sup>25)</sup>

니버는 신학적 리얼리즘을 통하여 리얼리티의 개념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아' 개념에 적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비록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아는 완전한 자아가 아니라 믿음과 은총에 의한 자아로 파악된다.<sup>26)</sup> 니버는 인간에게 리얼리티를 적용하여 설명할 때, 그가 문화와 현대의 문제에서 같은 적용을 한 것처럼, 인간의 자아도 결코 완전하여질 수 없다는 제한적인 견해를 밝힌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희망"이며, "완전은 리얼리티가 아니라 바램"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는 성취를 통하여 순수하게 구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용서하신 상태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27)</sup> 니버는 이러한 리얼리티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미성숙"에 대하여 늘 경각하고 교만하지 않은 방책이라고 주장한다.<sup>28)</sup> 니버는 만일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는 "지혜를 가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의지에 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sup>29)</sup>

생에 대한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통하여 확증된다. "세상의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기독교

24)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74. 니버는 '하나님의 완전'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Charles Hartshorne의 *The Vision of God*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전지전능'보다는 '자기-초월', '자기-능가' 개념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니버는 이 해석에 있어서 별도의 인용부호는 소개하지 않는다.

25) 위의 책, 94, 99.

26) 위의 책, 118-119.

27) 위의 책, 130.

28) 위의 책, 130.

29)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90.

의 신비이며, 이 거룩한 신비에 근거한 리얼리티에 의하여 기독교의 신앙은 유지될 수 있다.<sup>30)</sup> 반면 세속주의에 근거한 인간의 합리성은 생의 의미를 알 수 없으며, “곤궁하고 종속적이며 창조되고 유한한 리얼리티”에 직면한다.<sup>31)</sup> 니버는 감정(passion)에 이성이 종속되어 타락하게 된 창세기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성과 감정(passion)을 구별하여 인간론을 펼치는데, 스피노자(Spinoza)와 데카르트(Descartes), 그리고 라이프니츠(Leibnitz)가 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였지만, 스피노자가 감정을 억제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 제일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부끄러움’과 ‘회개’에 대하여 강조한 스피노자는 그 해결책으로 이성이 통제하는 “향락주의와 자연주의적 쾌락주의와의 혼합”의 스토의 범신론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 또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sup>32)</sup>

니버는 인간의 ‘원의(original righteousness)’는 최초 인간의 경우, 타락하기 전 잠시 잠깐 있었지만, 행위가 시작되면서 바로 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서, 이 원의는 역사 밖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sup>33)</sup> 니버는 어거스틴이 로마의 쇠퇴기에 “하나님의 도성”을 통하여 당시의 도덕적 타락이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짚었지만, 그런데도 역사 안에서 작동한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측면은 간과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완전한 타락이 아닌, 역사 안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신앙에 대하여 니버는 강조한다.<sup>34)</sup>

30)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203-204.

31) 위의 책, 206.

32)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122-123. 니버가 인용한 스피노자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Spinoza, *Ethics*, Part IV, Prop. LIV.

33) 위의 책, 296.

34)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221-222. 니버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와 같은 경우, 공동체 안에서 독창적이며

니버는 리얼리티를 정신적 작용을 설명할 때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억은 역사적 실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의 자유”로서 역사적 사건들을 자연적인 과거로 회기 시키지 않고, 현재에서 재구성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sup>35)</sup> 니버에게 역사의 리얼리티는 현재의 순간에 행위를 수반하는 “필연의 영역”이자 “자유 영역”이 되는 것이다.<sup>36)</sup> 역사의 리얼리티는 아울러 악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사용되는데, 악의 리얼리티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계시를 통하여 악의 의미가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니버는 설명한다.<sup>37)</sup> “악은 역사 자체 안에 있는 일종의 힘이며, 자연의 필요성을 역사적이게끔 하는 개입이 아니다.”<sup>38)</sup> 역사적 리얼리티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실패하는 이유는 “고전적 합리성과 역사적 발전 안에 현대적 자만의 혼합”에 있다고 니버는 비판한다.<sup>39)</sup> 니버에게 있어서 역사의 리얼리티는 신적인 주권만이 그의 용서와 자비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데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이를 대변한다고 강조한다.<sup>40)</sup>

지금까지 필자는 이 장에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니버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의 강점은 인간의 자유는 합리성을 통하여 파악되지 않고 역사

---

도덕적인 요소들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두정치를 통하여 공동체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예와, 도덕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일종의 ‘은총’에 의하여 가능한 경우인데, 이 후자의 경우는 “국가 내 지도체제의 이해관계와 전체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우연히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책, 222.

35) 위의 책, 20.

36) 위의 책, 20-21.

37) 위의 책, 27.

38) 위의 책, 27.

39) 위의 책, 67.

40) 위의 책, 139.

의 궁극적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계시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 가능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의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니버가 중시하는 점은 그 자유의 가능성은 이미 역사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 V.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리얼리즘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을 통하여 도덕의 속성과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역사의 의미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궁극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요한 점은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은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니버는 리얼리티의 개념을 역사와 연관하여 사용한다. 니버는 정의의 문제와 연관하여 리얼리티는 역사 안에서 현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에 현재에 가능하지 않은 리얼리티라면 단지 과거나 미래의 문제에 대한 꿈이나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니버의 견해다.<sup>41)</sup> 주체적인 개인은 정치적 약자를 위하여 이 땅에서 정의를 구해야 하는 존재이다.<sup>42)</sup> 이런 의미에서 리얼리티는 역사와 연관하여 현재적이어야 한다. 니버는 역사의 목표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 또한 실재가 됨을 강조한다. 역사 속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역사의 통치하는 리얼리티”임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니버는 확신한다.<sup>43)</sup>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는 것도 리얼리티임을 니버는 지적하

41)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43.

42)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63. 니버는 당시 정치적 사회복음주의 계열의 정의관이 강조하는 내용은 강제적인 사회개조를 통하여 가진 자들의 특혜를 약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보며, 이는 성서적 정의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43)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43. 니버는 역사의 통치는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면서,<sup>44)</sup> 니버는 역사적 리얼리티라는 개념으로 인간이 역사 속에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역사의 책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sup>45)</sup> 니버의 인간에 대한 리얼리즘은 인간의 권력과 부유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서, “맹수” 같은 인간임을 알면서도 그 자신이 신처럼 되려고 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인간임을 자인하며 역사의 주체적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니버의 관점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sup>46)</sup>

니버는 역사의 궁극적 의미로서 역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고 강조한다. 니버는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 실재를 조망하는 신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각 시대의 신화는 역사적인 의미와 연관이 되며, 역사가 제시하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리얼리티와 연관이 된다고 보았다.<sup>47)</sup> 니버는 역사의 이상(ideal)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 리얼리티의 상징”으로 파악한다.<sup>48)</sup> “하나님은 ‘리얼리티의 총체로서 영의 요소’이지만, 리얼리티의 궁극적인 속성은 과학으로 파악할 수 없다.<sup>49)</sup> 물론 자유주의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성적 방법론

---

더군다나 인류의 목표를 역사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같은 책, 43.

44) 위의 책, 49.

45) 위의 책, 82.

46)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116. 참고로 니버의 저서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는 저서 원본의 페이지가 아닌, 아래의 pdf 파일의 순서에 따른 페이지를 기입하였음을 밝힌다. Religion-online,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C%20Reinhold%20-%20The%20Self%20and%20the%20Dramas%20of%20History.pdf>(2020.6.29.)

47)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83-184.

48)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106.

49) 위의 책, 145.

에 신을 파악할 수 있는 종교적 리얼리즘의 요소들이 있다고 니버는 파악한다.<sup>50)</sup> 그러나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해하려 하였던 자유주의의 방법론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리얼리티는 파악이 될 수 없다. 시간이 리얼리티를 가지는 것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의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때이다.<sup>51)</sup> 이러 맥락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시며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궁극적 리얼리티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궁극적 실재의 계시로서 이는 모든 인간 경험을 위한 해석의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니버는 인간의 경험 자체가 그러한 신적 원리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역사 안에서의 십자가와 같은 궁극적 원리가 해석의 원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간 역사를 점철하고 있는 죄를 선으로 변형하는데, 이는 오로지 “신적인 가능성”으로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53)</sup>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의미에 대한 해답이 된다. 인간 역사가 비극적으로 끝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른다고 하면서, 니버는 궁극적 리얼리티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믿는다.<sup>54)</sup> 니버는 궁극적 리얼리티를 역사 내 교권이나 교회로 대치하는 흐름에 대하여서도 반대한다. 니버는 다윗 시대의 법제가 하나의 상징 역할을 하였지만, 그 법제를 성전 안에 두는 것을 수호한 제사장 그룹과 이를 비판한 예언자들의 갈등을 예로 들면서, 법제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잘못 간주하였던 것처럼, 국가의 가치를 법제처럼 여기는 교회들의 모습을 비판한다.<sup>55)</sup> 또한 교리나 종교교육을 통한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

50)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65.

51)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5.

52) 위의 책, 19-20.

53) 위의 책, 20. 니버는 죄가 선으로 바뀌는 신적인 능력에 의한 ‘변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질적 변화를 암시하는 ‘transmutation’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같은 책, 20.

54) 위의 책, 24.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니버는 “원죄의 실체(the reality of original sin)”에 대하여 인간의 악행에 대하여 성숙한 종교는 단지 도덕적 교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sup>56)</sup>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성이자 실재(reality)이다.”<sup>57)</sup> 니버는 인간의 삶이 타락한 것은 인간이 역사 안에서 존재(existence)하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지, 단지 ‘역사적 존재’라는 이유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역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한다.<sup>58)</sup> 역사적 존재는 역사의 해석에 갇히는 존재이지만, 역사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은 그 역사의 한계에 대하여 직시하고 역사를 넘어서는 초월적 의미 물음이 가능해야 한다. 인간의 실재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sup>59)</sup> 그러나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선과 악의 문제에 관계하여 “영원한 실재는 하나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지, 인간에 의하여 될 수 없다.”<sup>60)</sup> 따라서 역사 내 영원한 실재의 참여인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 되었으며, 그 역사 안에 놓인 인간은 역사에 대한 궁극적 의미 물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sup>61)</sup>

지금까지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궁극적 의미 물음의 원형이 될 수 있다는 니버의 관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은 정치적 리얼리즘을 해석하는 데에 충분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

---

55) 위의 책, 64.

56) 위의 책, 141.

57) 위의 책, 185.

58) 위의 책, 190.

59) 위의 책, 210.

60) 위의 책, 257.

61) 위의 책, 24.

## VI. 정치적 리얼리티로서의 리얼리즘

지금까지 검토한 대로 니버의 리얼리즘은 존재론적 리얼리티의 한계를 제시와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아와 연관하여 설명하며, 그리고 정치적 공동체의 이상을 구현하는 개념으로 또한 리얼리티를 파악하는데, 니버의 전체 리얼리즘 개념을 살펴볼 때 오히려 정치적 리얼리즘은 니버 신학에서 그 비중을 볼 때 큰 부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62)</sup> 니버는 정치와 연관하여 국가의 문제를 설명할 때, “사회적 실재”, “국가의 실재”, 또는 “국가 존재의 실재”와 같은 개념으로 리얼리티를 쓰면서, 국가의 개념에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국가 그 이상의 목표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니버는 공동체의 리얼리티에 대한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간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정의(Justice)의 실현으로서의 ‘정치적 리얼리티’와 정치의 ‘역사적인 목표로서의 리얼리티’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력(vitality)과 형식(form), 창조성과 파괴성,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 있는 인간의 정황을 설명하는 니버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리얼리티는 네 가지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파시즘’, 역사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혁명을 통하여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절망의 문제를 훈육과 치료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프로이디즘(Freudism)’이다.<sup>63)</sup> 니버는 근대의 이러한 노력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대의 실재(reality)라는 개념이 그저 “일시적인 사건들의 흐름”과 같은 것으로 파악되며,<sup>64)</sup> 인간에게 궁극적 의미

62) 필자의 판단으로 니버의 신학적 토대는 신정통주의적 관점을 따르며, 행위가 요청되는 현실정치의 분석에 있어서 그의 신학적 리얼리즘을 성실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본다.

63)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56.

64)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25.

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대적인 역사관이며, 이 또한 역사적 현실(reality)이라고 강조한다.<sup>65)</sup>

니버는 서구사회가 더욱 이상적인 “사회와 정치적 유대”를 통하여 무정부와 같은 혼란을 피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리얼리즘이 있어야 하는데, 니버 시대에 이를 가능케 하는 기독교나 문화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물론 현실이었다.<sup>66)</sup> 따라서 정치적 리얼리즘은 종교적 이상주의와 같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니버는 간디의 “아힘사(ahimsa)”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도덕적 순수성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한다.<sup>67)</sup> 니버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이론을 통하여 “경제적 인간을 살아있는 리얼리티”<sup>68)</sup>라고 인용하는 점이나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를 리얼리티로 설명하는데<sup>69)</sup>, 이는 정치 문제와 아울러 경제 문제 또한 그 처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목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니버는 또한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리얼리즘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다고 이해하며,<sup>70)</sup> 공산주의는 “리얼리즘이 아니라 이상주의로서,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영적 약속으로” 이끌어 간다고 본 라스키(Laski)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실제 공산주의의 정치적 이상도 큰 틀에서 보면 신학적 리얼리즘의 이상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sup>71)</sup>

공산주의는 형식적으로 종교적 이상주의와 같은 개념을 가졌지만, 그

65)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231.

66)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39.

67)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244.

68) 위의 책, 143.

69) 위의 책, 182.

70)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243.

71)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163. 니버가 인용한 라스키는 다음에 있다. Harold Laski, *Communism*, 250.

목표를 자본주의 체제의 제거에 두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치체제를 모델로 삼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니버는 비판한다.<sup>72)</sup> 니버 당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의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던 미국과 영국, 그리고 구소련도 비록 각 국가가 권력의 의지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서로가 권력의 우위에 있다는 견해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평화는 힘들 것이라고 니버는 진단한다.<sup>73)</sup> 따라서 “권력과 정의, 또는 자유와 정의의 관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미국식 민주주의도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sup>74)</sup> 오히려 국가는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교만이 드러나며 이익을 확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보복을 수반하게 되는데, 역사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니버는 지적한다.<sup>75)</sup>

필자의 판단에 니버식의 변증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정치적 리얼리즘의 경우라고 본다. 미국식 민주주의나 마르크스적 공산주의도 니버 시대에 정치적 공동체의 대안이 되지 못하였으며, 경제적 문제도 해결

72)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91.

73)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86.

74)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19. 59. 니버는 영국의 칼빈주의(New England Calvinism)와 버지니아 자연신론(Virginian Deism) 그리고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등이 미국 민주주의에 배경이 된다고 보지만 이런 관점들은 한결같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칼빈주의의 경우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자연신론의 경우 영국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인지 의문이며, 그리고 제퍼슨주의의 경우 정치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였지만,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였다고 니버는 지적한다. 같은 책, 19. 참고로 인용은 저서 원본의 페이지가 아닌, 아래의 pdf 파일의 순서에 따른 페이지를 기입하였음을 밝힌다, religion-online.org,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Irony%20of%20American%20History.pdf>(2020.6.29.)

75)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30.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니버는 전통적인 헤겔식의 역사적 발전의 변증법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 부분이 바로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으로 인간이 처한 역사적 의미는 십자가를 통한 계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다음 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을 통하여 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 정치 신학의 전망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도록 하겠다.

## VII. 나가는 말: 코로나19 시대의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을 통하여 그동안 니버 사상의 해석에 있어서 정치적 현실주의에 제한된 부분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계시와 역사, 그리고 자유와 정치에 관한 소주제와 연결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통하여 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이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은 21세기 질병의 위협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적 위기에 여전히 희망이 있는 ‘역사’에 대하여 궁극적인 이상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 니버가 지적한 대로 인간의 역사는 유한하며, 인간 이성 또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4차 산업의 과학혁명을 통하여 미래 문명의 장비 및 청사진을 내놓은 21세기의 초입에 20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지구 공동체는 질병으로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서론에서 간략한 대로 국가 간의 경계를 풀어놓고 시장의 세계화를 외쳤지만, 정작 인간과 생명 가치의 세계화가 아닌 자본의 세계화로 빈곤간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가 간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와 세계 값싼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과 권력투쟁의 정치 불안으로 해상에서 사투하는 난민의 문제, 그리고 안보 불안으로 군사 무기의

수요는 늘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은 자연재해와 온난화, 그리고 공해의 문제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피해는 자연과 함께 인간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있다.

인간이 코로나19 이전에 노말(normal)로 여겼던 일상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가? 니버의 리얼리즘은 여전히 인간과 그 집단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치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본다. 니버의 리얼리티 개념은 인간의 정신과 자아, 인간이 사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직면하는 정치적 실상, 그리고 현실을 넘어서는 궁극적 세계에 관하여서도 리얼리티 개념을 적용하는데, 이때 초월적인 리얼리티는 인간의 합리성과 역사적 조건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실재이다. 따라서 니버에게 이상(ideal)은 “역사적 사실과 [그 리얼리티를 초월하는]”<sup>76)</sup> 연역적 이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은 근대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책임의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을 놓고 끊임없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의 혜택을 어떤 국가가 먼저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백신의 구체적인 수혜자가 누가 될지는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백신 개발을 놓고 범인도주의적 정책이 지구 공동체의 소통으로 국가 간 협력하지 않으면, 백신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독점은 불 보듯이 명확한 것이며, 백신의 배급을 놓고 정치적 권력은 이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백신의 혜택에서 유색인종과 난민, 그리고 빈곤층은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인종이 차별 없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생명의 존중과 인권이 담보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적

76)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9. 니버는 히브리 종교의 역사관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설명하며 실제 역사와 유리되지 않는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의미를 충분히 제시한다고 보고 있다.



경험을 통하여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은 르네상스 이후 인간의 합리성을 통하여 이룩하여 온 문명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권력의 쟁투와 집단의 이기심, 그리고 비인간화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니버는 그의 신학적 리얼리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자아는 역사적 조건에 놓이지만, 역사 안에서 역사를 파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변형(transmutation)하는 책임적인 자아이다.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한 자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아로서 이 시대 인간의 비인간화를 극복하는 가능성의 윤리를 제시한다고 본다. 니버의 리얼리즘은 존재의 의미를 중시하게 하며, 그 존재가 역사 밖에서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궁극적 실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서 유리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본다. 리얼리티는 현재적 사건으로 인간과 집단이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에 간하지 않고, 악을 극복하고 비극의 시대에 소망의 낙관주의의 모습을 보게 한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겪는 리얼리티는 현재적이며 역사적이며 미래적이고, 그리고 초월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은 현 교회 공동체에 공공신학의 회복에 정치 윤리적 목표를 제시한다고 본다. 니버의 개념을 빌리면, 교회는 역사적(historical)인 구성체가 아니라 역사 내에 있는 역사를 바꾸는 공동체이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사실(fact)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설명으로 일관한다. 니버의 설명대로 과학은 비록 객관적 지식을 통하여 현실 세계 내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답을 줄 수 없고, 자칫 거짓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sup>77)</sup>

77)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73.

코로나19가 인간의 생사에 관여하고 과학은 이를 헤쳐나갈 대안을 제시 하지만, 그 과학적 방안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사의 의미 물음은 코로나19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 안에 있는 인간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생의 의미 물음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고, 코로나19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인간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조건들이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Niebuhr, Reinhold.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0
- \_\_\_\_\_.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5;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 \_\_\_\_\_.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6;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_\_\_\_\_. *Beyond Traged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7.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1;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1;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_\_\_\_\_.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 \_\_\_\_\_.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Edward W. Hazen Foundation, 1947.
- \_\_\_\_\_.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 \_\_\_\_\_.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_\_\_\_\_.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 \_\_\_\_\_.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230 『기독교사회윤리』 제47집

논문투고일: 2020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0년 07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08월 04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에 대해서 연구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정치 신학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현실주의 윤리’를 보다 광의적으로 확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리얼리즘 또는 이와 연관된 리얼리티(reality)의 한국어 의미는 ‘현실’이나 ‘실재’의 의미를 넘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존재’, ‘실제’, ‘사실’, ‘직시’, ‘상태’, ‘상황’, ‘일시성’, ‘현상’, 심지어 ‘참상’, 그리고 현실의 모든 조건을 넘어 은혜로 주어지는 ‘궁극적 이상’인 ‘하나님 나라의 실재’로도 그 의미지평을 확대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니버의 신학적 리얼리즘은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현재 세계 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간 존재론의 지평을 열어준다. 즉, 니버의 리얼리즘은 역사와 인간 존재, 정치 경제적 현실,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와 연관이 된다. 본 연구는 현재 세계 내 정치윤리적인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리얼리즘이나 리얼리티에 대한 보다 광의적이고 심층적인 해석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책임을 묻는다. 본 논문은 니버의 ‘현실주의’라는 개념 대신 ‘리얼리즘’으로 통일하며 일반적으로 ‘실재’ 또는 ‘현실’로 해석되는 리얼리티(reality) 개념도 문맥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의미의 지평을 확대해서, ‘리얼리티’라는 단어의 의미를 유지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니버가 이해하는 ‘신학적 리얼리즘’이나 ‘리얼리티’의 개념이 정치적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신과 연관된 존재론을 통하여 책임적 자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신학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한다.

**주제어:** 리얼리즘, 기독교 현실주의, 전쟁과 평화, 권력, 라인홀드 니버

---